

여호와의 악기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악기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자 생각에는 아마도 트럼펫(Trumpet, 성경에서는 '나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기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악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필자는 그 중에서도 왜 트럼펫이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악기라고 하는 것인지 여기서 그 이유를 한 번 피력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구약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실 때는 항상 나팔소리가 들렸습니다. 또한 척박한 시나이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실 때도 그들의 행보를 나팔로 이끌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대적을 치러나갈 때도 최선봉에는 어김없이 나팔이 있었고, 성회로 모일 때나, 각양의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나, 요벨의 해[禧年(禧年), Yobel, Jubilee, יובל]나 하나님의 궤(櫃, Ark of the Covenant)를 앞세울 때나 한결같이 나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성경에서 나팔은 '여호와의 악기'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이 같은 처지는 다름이 없습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곧잘 나팔로 비유하고 있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때에도,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실 때도, 천사들이나 천사장이 나타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위에 강림하실 때도 한결같이 나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장엄하신 음성과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와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대하 07:06)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뽕뽕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출 19:16-19)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 그의 오른손에 일곱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계 01:10-16)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마 24:31)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전 15:52)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04:16-17)

구약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나팔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쵸츠라(Chatzotzerah)입니다. NIV는 이를 ‘Trumpet’ 또는 ‘Silver Trumpet’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종교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한글성경에서는 그대로 ‘나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쵸츠라는 기록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악기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악기입니다. 기록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만드는 방법과 연주 및 사용방법 그리고 연주자까지 일일이 정해주고 계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민 10).

하쵸츠라의 길이는 대략 40-55cm이며, 취구(吹口, Mouthpiece)는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 만큼 넓었고, 몸통은 끝으로 갈수록 점점 넓게 만들었습니다. 하쵸츠라는 이후 솔로몬 때까지 제사장들에 의해 연주되기에 이릅니다. 기록에서(민 10)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개의 은나팔을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며, 요벨의 날과 정한 절기와 월삭(月朔) 때에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서 나팔을 불도록 명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쵸츠라는 언약궤(言約櫃)의 1차 운반 때는 물론이고, 2차 운반 때에도 7명의 제사장이 이를 불었습니다. 언약궤 안치식(安置式) 이후 조직된 찬양대에서는 2명의 제사장이 하쵸츠라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솔로몬(Solomon, Shlomo, ~~שלמה~~, 재위 B.C.1037-B.C.998)의 성전 봉헌식(奉獻式) 때에는 통상 2개 이상의 하쵸츠라를 사용하였으며, 가장 많았을 때는 120개의 하쵸츠라가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대하 05:12-13).

또한 하츠르라는 다윗시대와(대하 29:26-28) 바벨론 포로귀환 이후에서도 사용되었고(스 03:10), 포로귀환 이후 성전의 성벽 낙헌제(樂獻祭, Freewill Offering, *Nedabah*, נדבה) 때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연주하기도 하였습니다(느 12:35, 41).

이외에도 다윗의 노래 시편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시 98:06), 북이스라엘 12대왕 요아스(Joash, B.C.801-786) 즉위식에도 쓰였으며(왕하 11:12-14), 호세아(Hosea)서에서는 악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로도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호 05:08).

하츠르를 부는 방법은 ‘그냥 부는 방법’과 ‘올려서 부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부는 것은 짧은 음으로 끊어서 불거나 2-3개의 음을 장식 없이 오랫동안 길게 부는 것이고, 올려서 부는 것은 그냥 부는 것의 약 3배 길이로 길게 부는 것입니다. 달리 올려서 부는 것은 매우 커다란 호흡으로 파동을 주어, 여러 가지의 장식음들을 이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불게 됩니다.

다음의 것은 ‘쇼파르’(Shofar)입니다. NIV에서는 ‘Trumpet’, 한글성경에서는 ‘나팔’, ‘양각나팔’, ‘양각’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쇼파르는 성경의 나팔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인의 민족적인 나팔로써 군사적·종교적 행사에 백성들을 회집할 때 어김없이 사용되었습니다.

본래 쇼파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이삭을 대신한 숫양을 기리는 뜻을 담아, 숫양의 길고 끝이 말려 올라간 뿔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뿔은 곧게 편 후 끝이 큰 쪽은 그대로 두고, 끝이 작은 쪽을 잘라 구멍을 뚫기 때문에 뿔 자체가 취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용한 쇼파르는 특별한 취구가 없기 때문에 2-3음 정도의 소리밖에는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쇼파르는 크기와 구멍의 구조에 따라 음높이가 좌우되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의 압력(세기)을 점점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또 다른 소리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쇼파르는 주로 전쟁이나 행진 등을 위한 신호용 나팔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쇼파르는 예배나 각종 절기나 축일 예배의 신호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악기로 취급되어 예배시작 전에 때로는 성전의 분위기와 생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다른 악기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쇼파르가 예배에 사용된 것은 다양한 기록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사무엘하 06: 15, 열왕기상 01:34, 39, 41, 대상 25:01-06, 대하 15:14).

하쇼츠라와 쇼파르는 대부분 함께 나타나며, 모두는 연주용보다는 주로 신호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악기의 차이점으로서, 하쇼츠라는 음정이 쇼파르에 비하여 보다 높았으며, 음색 또한 더욱 예리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또한 쇼파르는 각종 축제나 절기용 · 전쟁용 · 신호용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하쇼츠라는 주로 예배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쇼파르는 제사장 · 레위인 · 사사 · 군인 등의 폭넓은 계층이 사용하였으나, 하쇼츠라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사용하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렌’(Keren)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쇼파르라는 단어와 함께 ‘은나팔’ 또는 ‘뿔’로 표기되는데, 이는 NIV에서 ‘Ram's Horn’, ‘Trumpet’, 또는 ‘Cornet’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레 23:24, 수 06:04-05, 08-09, 13, 단 03:05, 07, 10, 15).

케렌은 앞선 것과는 달리 소의 뿔이 재료가 되나, 모양은 쇼파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에 이것을 붙어서 기념하라고 명하고 계시며(레 23:23-24), 때로는 케렌과 쇼파르 모두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수 06:05). 또한 케렌은 요벨의 날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나팔은 케렌에 해당합니다.

필자 생각에 하쇼츠라는 이 땅위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쇼파르는 저 하늘에 울려 퍼지는 사람들의 찬양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들 나팔에 담긴 신앙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아가 구원하시기 위한 징표라 할 것입니다(민 10:01-10).

그렇다면 세상의 많고 많은 악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르셔서 만들게 하신 악기로서 트럼펫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악기로 보아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와의 악기라는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많고 많은 수많은 악기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트럼펫을 그렇게 좋아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마도 필자 생각엔 트럼펫의 ‘울려 퍼지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위에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저 하늘에 울려 퍼지고, 그러기에 트럼펫 보다 더 적합한 악기가 있었을까요? 필자는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고 계신 악기는 다름 아닌 트럼펫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필자가 처음으로 트럼펫을 접한 것은 넥잡아 4년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펫을 불게 된 뚜렷한 계기는 없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어보겠다는 막연한 생각 하나만으로 그때 값비싼 트럼펫 하나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펫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트럼펫 구조는 물론이고, 어떻게 부는지, 음계는 어떻게 내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어느 것 하나도 몰랐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없고 그렇다고 레슨을 받기에는 더더욱 창피하고 그냥 그렇게 수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작 할 수 있었던 것이라야 트럼펫에서 마우스피스 뽑아 그것 하나만 덜렁 손에 쥐고 차안에서 집에서 그리고 연구실에서 그저 시끄럽게 뻑뻑 불어대는 일밖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일이 채 2주가 되기도 전에 우연치 않게 밝은 음색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마우스피스만을 가지고 ‘학교종이 땡땡’이나 ‘송아지’ 같은 동요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독학으로부터 비롯된 실력이었기에 그것이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이제는 그런대로 찬송가 전곡은 무난히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습니다. 같잖지만 말입니다.

어느 어스름한 저녁 한 날 필자는 발아래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는 학교 본관 뒷동산에 올라 일단 주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큰일을 행하신’(To God be the Glory, 615장)이라는 찬송가를 불러 보았습니다. 필자만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무척 장쾌(壯快)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실로 스스로 미치기에 충분한 정도로 말입니다. 그때 필자의 심상(心想)에 하나님께서 왜 트럼펫을 좋아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여호와와 악기’라고 칭했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그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게 까마득했던 곳에서 한 어르신이 쥘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 필자를 향해 흔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위를 살폈지만 필자에게도 청중은 있었습니다. 고작 달랑 1명이었지

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쥘모자는 널리 울려 퍼졌던 트럼펫소리의 반향(反響)이었다고 보아 또 다시 트럼펫 취구에 입을 댈 수 있었습니다. 문득 이스라엘 또한 음향(音響)이 향연(香煙)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과 기호를 넉넉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다니는 교회에는 브라스앙상블이 있습니다. 트럼본(하초츠라, 1), 호른(쇼파르, 1), 트럼펫(케렌, 2)으로 구성된 주자(奏者, 4)들은 예배 시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그 향연을 더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축도 이후에 예배가 파하고 되돌아서는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설교에 걸맞은 찬송을 연주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고 있는 브라스앙상블 때문입니다. 브라스앙상블의 찬송연주가 끝나면 우리 모두는 박수로 화답합니다. 필자에게는 매주일 보는 한결같은 모습이지만 때마다 밀려오는 감동은 어느 때고 새롭습니다. 여호와와 악기소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강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드럼도 좋은 악기입니다. 신명을 북돋을 수 있는 전자키보드 또한 좋은 악기입니다. 앰프에서 흘러나오는 베이스나 리드기타도 마찬가지로 좋은 악기입니다. 교회 본당 뒷면 전면을 장식하고 있는 파이프 오르간도 역시나 좋은 악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악기들에 맞추어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박수소리도 물론 좋은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악기들은 분명 ‘여호와와 악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명하셔서 만들어진 악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천사들이나 천사장이 다룰 수 있는 악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서 재림하실 때 들려올 악기도 아닙니다.

모든 악기의 주인 된 악기로서 그 한 중심에 브라스앙상블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위에 올려 퍼지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저 하늘에 올려 퍼지고, 이 시대에 여호와와
악기가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
니다.